

# 요한 칼빈의 영혼의 중간기 상태에 대한 연구

## A Study of John Calvin's View on the Intermediate State of the Soul

류기철

고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

### 목 차

- I. 개 요 | 103
- II. 영혼 수면에 대한 재세례파의 관점 | 106
- III. 중간기 상태에 대한 칼빈의 관점 | 110
- IV.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 117
  - 1.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 117
  - 2.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 119
- V. 결 론 | 120



요약

## 요한 칼빈의 영혼의 중간기 상태에 대한 연구

기독교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과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 사도신경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왔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혼도 몸처럼 부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어 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몸은 생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게 되면 부패하여 썩게 되기에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영혼은 육체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사이 동안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의 중간기 상태(Intermediate State)에 대해 많은 질문과 상상을 해 왔다. 그러한 역사 중에 칼빈은 그의 첫째 신학 저술을 영혼의 중간기 상태라는 주제를 택함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의 제세례파가

이 주제에 대해 가졌던 비 성경적인 시각에 저항해 칼빈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관점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요한 칼빈의 첫 신학 논문인 “Psychopannychia”와 후속 논문인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 그리고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칼빈이 제세레파의 이단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성공적으로 드러내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우선 칼빈이 주장하는 제세레파의 영혼 숙면이론(Soul Sleep)을 네 가지 관점에서 기술한 뒤, 이어서 제세레파가 오용했던 같은 혹은 비슷한 성경의 구절들을 칼빈은 어떻게 다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했는가를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성경 해석과 주장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서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세레파의 주장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성경적 종말론 해석을 통해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충실하며 진실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칼빈은 성경의 심플리시티(simplicity)를 믿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굵고 있는 선을 넘어가지 않는 칼빈이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 그도 멈추었고 성경이 나아가는 곳에 그도 나아갔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현대 그리스도인이 수렴해야 할 두 가지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A Study of John Calvin's View  
on the Intermediate State of the  
Soul*

주요어

요한 칼빈, 영혼 숙면, 중간기, 기독교 강요, 제세례파

## Abstract

### A Study of John Calvin' s View on the Intermediate State of the Soul

Prof. Dr. Ki-Cheol Yu

The Christianity has affirmed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the judgment of the living and the dead, and life everlasting according to the Apostles' Creed. We cannot speak of, however, the resurrection of soul on the Last Judgment Day, because the soul is immortal whereas our bodies are mortal and decayed after physical death. When it comes to the period between death and final judgment, where does soul stay under what condition? Many have questioned and conjectured about the intermediate state of the soul throughout the history of Christianity. Among them, Calvin devoted his first theological writing to address the issue of the intermediate state to defend the biblical view against the heretical view of the Anabaptists.

This research will use Calvin's first theological treatise called "Psychopannychia" and his successive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 and the Institutes as primary sources to bring to surface how Calvin successfully interpreted the pertaining biblical accounts. First, this researcher will reveal the doctrine of Soul

Sleep as Calvin reports with four different arguments. Secondly, this researcher will deal with how Calvin differently and yet more faithfully interprets the same biblical accounts that the Anabaptists have taken up. Thirdly, this researcher will seek to come up with two implications that we can learn from Calvin's interpretation. The thesis of this study is that Calvin, against the view of the Anabaptists, is faithful and true to the clear teachings of the Scripture in his interpretation of the biblical accounts of the eschatological promises. In other words, Calvin holds to the simplicity of the Scriptures. He does not go over the limits that the Scripture draws. As the Bible stops, so does he, and when the Scripture goes, he goes.

Keywords | John Calvin, Soul Sleep, the Intermediate State, the Institutes, the Anabaptists

## I. 개요

2009년 5월 23일 토요일 아침 대한민국의 전대통령인 노무현씨가 자살을 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전 세계에 속보로 빠르게 전달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어떤 어린이가 물어보았다. “그 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는 죽은 자의 몸의 부활과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심판과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 사도신경을 통해 진리를 가르쳐 왔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영혼도 몸처럼 부활하는가 안 하는가 하는 문제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왔는데, 이것은 몸은 생명이 다하여 죽음을 맞게 되면 부패하여 썩게 되기에 나중에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영혼은 육체처럼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죽음과 그 이후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 사이 동안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죽은 자의 영혼은 우주 어딘가에서 방황 유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지구 상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위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는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의 중간기 상태(Intermediate State)에 대해 많은 질문과 상상을 해 왔다.<sup>1)</sup> 그러한 역사

1) 어거스틴은 모든 영혼의 궁극적인 운명은 인간의 죽음과 함께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서방로마교회는 전통적으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면죄부를 통해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카톨릭 교회의 연옥설에 대해 부정했다. Ewald Plass는 루터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It is certain that to this day Abraham is serving God, just as Abel, Noah are serving God. And this we should carefully note; for it is divine truth that Abraham is living, serving God, and ruling with Him. But what sort of life that may be, whether he is asleep or awake, is another question. How the soul is resting we are not to know, but it is certain that it is living.” Ewald M. Plass, What Luther

중에 칼빈은 그의 첫째 신학 저술을 영혼의 중간기 상태라는 주제를 택함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엿볼 수 있으며, 이것은 구체적으로 16세기의 제세례파가 이 주제에 대해 가졌던 비 성경적인 시각에 저항해 칼빈이 올바른 성경적 해석과 관점을 펼치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요한 칼빈의 첫 신학 논문인 “*Psychopannychia*”와 후속 논문인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 그리고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칼빈이 제세례파의 이단적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성경적 관점을 성공적으로 드러내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칼빈이 주장하는 제세례파의 영혼 숙면이론(Soul Sleep)을 네 가지 관점에서 기술한 뒤, 이어서 제세례파가 오용했던 같은 혹은 비슷한 성경의 구절들을 칼빈은 어떻게 다르게 그러나 정확하게 해석했는가를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칼빈의 성경 해석과 주장에서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두 가지 현대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이 글을 통해서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제세례파의 주장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칼빈은 성경적 종말론 해석을 통해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충실하며 진실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줄여서 표현하자면 칼빈은 성경의 심플리시티(simplicity)를 믿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굶고 있는 선을 넘어가지 않는 칼빈이었다. 성경이 멈추는 곳에 그도 멈추었고 성경이 나아가는 곳에 그도 나아갔다. 특별히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그러함이

---

Says, vol. 1.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0. p. 385

Jaroslav Pelikan도 루터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But the soul does not sleep in the same manner (like a person on earth.) It is awake. It experiences visions and the discourses of the angels and of God. Therefore, the sleep in the future life is deeper than it is in this life. Nevertheless, the soul lives before God.” J Pelikan, ed., *Luther’s Works*, vol. 4.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4. p. 313.

아래를 참고하라. Yoon B. Choi’s work on the Eschatology of the Reformers where he deals with John Calvin’s view on Soul Sleep: “The Eschatology of the Theology of the Reformed Reformers: H. Zwingli, M. Bucer, and J. Calvin” vol. 38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2005, pp. 185-209.



잘 나타난다(Calvin, trans. by Farley, 1982: 136).

먼저 영혼의 중간기 상태에 대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조심하기를 바라는 내용은 그의 기독교 강요(*the Institutes*)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허락하시는 지식의 깊이 보다 더 과해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와 같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낙원으로 환영해 주심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도록 하실 것인데, 반대로 정죄 받은 자들의 영혼은 그들이 받아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게 될 것이다”(Calvin, 1950: III. 25. 6). 영혼들이 거하고 있는 장소에 대해서도 칼빈은 “아브라함의 품”(누가복음 16:22) 이라고 하는 성경의 해답이면 충분하며 이외에 다른 답을 알려고 하는 것도 또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중간기 상태의 영혼에 대해서도 칼빈은 “경건한 자의 영혼은 복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약속된 영광을 누릴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까지는 모든 것이 긴장 보류 상태로 유지된다. 정죄 받은 자들의 결말도 의심의 여지없이 마찬가지이다. 즉 그들을 위해 정해진 형벌의 곳으로 끌려갈 때까지 사슬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다(유다서 6)”(Calvin, 1950: III. 25. 6).

그러면 어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중간기 상태를 허락하시는가?” 칼빈이 설명하는 것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형벌을 받게 하실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중간기 상태를 제공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마귀의 죽음”을 경험할 마지막 심판 날 까지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Calvin, 1950: III. 25. 9). 이러한 특별한 내용을 제외 하고는 칼빈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한계”에 대해 우리가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다 (Calvin, 1950: III. 25.6).

## II. 영혼 수면에 대한 제세레파의 관점<sup>2)</sup>

제세레파가 주장하는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는 마치 죽은 것처럼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믿고 있음을 칼빈은 설명하고 있다. 칼빈은 제세레파가 주장하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까지 무감각적 상태에서 잠자고 있다가 심판 날이 되면 잠에서 깨어난다 라고 상상한다. 또 다른 이들은 영혼은 생명에 대한 힘으로서 인간이 죽음과 동시에 육체와 같이 파멸되고 사라지며 소실되었다가 나중에 인간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그때 영혼도 같이 부활하게 된다고 믿는다.”<sup>3)</sup>

(Calvin, J. (1983). *Tracts and Letters: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Psychopannychia*. Tracts Volume 3, Part 3, ed. Henry Beveridge. Grand

---

2) 칼빈은 제세레파의 관점을 옹호하는 자들을 향해 “아랍인들”과 칼빈 보다 230년 전에 살았던 “로마의 교황 요한” 이라고 신랄하게 지칭했다. 그러나 이런 옹호자들 외에는 기독교의 전체적인 전통의 흐름은 영혼 숙면(soul sleep)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전통을 따르는 인물로서는 터툴리안(Tertullian), 이레니우스(Irenaeus), 어거스틴(St. Augustine), 버나드(St. Bernard) 등이 있다.

3) 요한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1534)보다 더 이전에 첫 논문으로 “Psychopannychia”를 저술했다. 이 논문의 특징은 제세레파에 대한 격한 논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영혼의 불멸”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가르침이 칼빈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기술한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살펴 볼 때에도 “Psychopannychia”에서 피력한 그의 주장들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는 언제나 그가 가진 열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Rapids: Baker Book House. p.419).

칼빈의 제세례파에 대한 기술에 바탕을 두고 그 주장을 재구성해 보면 영혼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완전히 감각(sensibility)을 잃게 되거나 혹은 무(nothingness)의 상태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세례파가 믿고 있는 것은 무의식 상태의 영혼 혹은 영혼의 멸절(mortality)로 말할 수 있다.<sup>4)</sup> 칼빈이 제세례파에 반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지는 인간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감각과 이해와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기에 “숙면”으로 설명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마지막 날 까지 “쉽(rest)”으로 이해해야 다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32). 따라서 칼빈은 자신의 첫 논문에서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영혼의 불멸성을 지키려 하였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영혼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존재함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다음은 제세례파가 영혼의 숙면 설에 대해 펼치는 4가지 주장을 정리한 것인데 각각의 주장에 대해 칼빈의 반대 증명이 2장에 이어서 전개된다.

1. 제세례파들의 첫 번째 주장은 성경은 인간의 영혼을 동물의 영혼과 같은 본질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제세례파가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동물에게 주신 것과 같은 종류의 영혼 외에는 인간에게 불어넣어주신 것이 없다”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0).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창세기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그들은 “생기(the breath

4) 칼빈은 제세례파에 반대하여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영혼의 실체(substance)를 인정하나 죽은 자의 영혼은 아무런 감각이나 의식이 없이 심판 날까지 잠자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다른 부류는 영혼에 실체가 없음을 믿으면서, 영혼이란 단순히 인간이 살아갈 때 숨을 쉬게 하며, 기타 여러 생의 행위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power)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Calvin의 *Treatise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p. 119ff. 를 보라.

of life)”(창세기 2:7)를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불어 넣어 주셨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노아에게 나오는 모든 쌍의 동물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생명의 기운(the breath of life)”(창세기 7:15)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그들은 성경은 동물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을 같이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창세기 1:21절을 지적한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So God created the great creatures of the sea and every *living and moving thing*.)”<sup>5)</sup> 그러나 같은 단어가 창세기 2:7절에도 그대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즉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and the man became a living being).” 따라서 존재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동물과 인간은 같다.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세레파는 동물들이 죽으면 땅의 흙으로 사라지듯이 인간도 모든 면에서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2. 그들의 두 번째 주장은, 비록 영혼이 불멸한다고 받아들여야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원래의 불멸성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절로는 창세기 2:17절의 말씀을 든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이요”(로마서 6:23). 또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에스겔 18:4). 이러한 성경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그들은 영혼이 비록 태초에 창조가 되었을 때에는

5) NIV 영어 성경은 번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에 대해 “living being [חי]”을 “living g...thing”으로 창세기 1:21에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창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는 부분은, “man became a living being - חי”으로 그대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이나 같은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주지하면서,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지만 동물과 인간이 모든 면에서 본질이 동질적 것이라고 축소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제세레파가 범하고 있는 실수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네페쉬’(נפש)가 동물과 인간의 영적인 면에서의 동질성을 나타내려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생명체(“being”)(즉 영혼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를 지칭하고 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불멸의 선물을 받았으나, 타락을 통해 불멸의 선물을 잃게 되었다고 주장한다(Calvin, *Psychopannychia*: 453). 그들은 또한 창세기 3:19절을 지적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트럼펫 소리가 인간의 영혼들을 깨우기 까지 영혼들은 땅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는 결론을 추론해 낸다.

3. 그들의 세 번째 주장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영혼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7). 실제로 누가복음 7:60절에 누가는 스테반의 죽음을 묘사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요한복음 11:11). 그 외에도 다른 구절들(데살로니가전서 4:13; 욥기 14:7-12)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sup>6)</sup> 죽은 자를 잠자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성경의 내러티브에서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제세레파는 ‘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4. 제세레파의 네 번째 주장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영광으로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상벌을 주실 마지막 심판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그 전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어떤 영광과 고통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62). 따라서 자연적인 결론은 선한 자도 상급을 받지 못하고 악한 자도 벌을 받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6) 영혼 숙면에 대한 제세레파의 강력한 지지 구절로 욥기 14:12절을 그들은 사용한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태복음 25:34).<sup>7)</sup> 제세레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상과 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운데 기간에는 우리의 영혼은 수면하게 되며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내게 된다”(Calvin, *Treatises*: 146). 그래서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 중간기 동안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악한 자들도 지옥에서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게 된다. 라고 논리를 펼친다. 그러나 제세레파들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해 성경의 진리를 너무나도 편협하게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과 벌 주시기를 심판 날까지 연기하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상과 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III. 중간기 상태에 대한 칼빈의 관점

Wendel은 칼빈의 성경 해석학적인 태도에 대해 “조심하지 않고는 혹은 성경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다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285).

7) 제세레파들은 이런 방식으로 논리를 편다. “만약 이미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다면 어떻게 오라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 이미 안전하게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라 라고 명령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마태복음 24:31 절을 인용한다 “그들이[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한 마태복음 25:34도 인용한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 나아와...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탈릭은 저자의 것) Calvin, *Psychopannychia*, p.462를 참고하라.

칼빈은 자신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이상을 넘어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기 상태를 우리가 다룰 때에 절제와 냉철함을 가지고 다루기를 요구하고 있다(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285). 칼빈에게 있어서 참으로 종교 개혁의 중심 개념은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었다.

1. 영혼의 불멸성을 지키기 위해 제세례파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상적 기초를 다지는 선언을 한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의 형상의 적절한 자리(the proper seat of his image) 영혼 안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다<sup>8)</sup>(Calvin, *Institutes*, I. 15.3). 칼빈도 인정하는 것은 동물들을 지칭하여 “생명”(living soul)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들도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1). 그러나 동물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은 다르다는 것을 칼빈은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산 영혼(living soul)을 통해 지식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나, 동물은 “산 영혼(living soul)은 단순히 육체의 감각과 움직임만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1). 칼빈은 동물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들의 감각과 움직임은 동물의 육체와만 연결이 되어있다. 따라서 동물의 몸이 죽어 땅에서 부패함으로 그들의 감각 혹은 영혼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력은 인간의 몸이 없어도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인간의 몸이 죽어 부패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8) 칼빈은 인간이 몸이 동물과는 차이가 난다고 하는 한에서는 인간의 육체적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에 부합하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육체적 모습보다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에 훨씬 깊은 부합과 유사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죄로 인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선물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성경의 명확하고 진실된 해석을 통해 반론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존재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함으로써 성경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sup>9)</sup> 칼빈이 해석하는 창세기 3:19절의 뜻은 흙으로 만든 인간의 부분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머지 부분인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4). 영혼이 돌아가는 곳이 흙일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다른 영역에서 이끌어내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때문이라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4). 칼빈은 그의 주장에 대해서 욥기 10:9-12절을 증거로 인용한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욥은 스스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다른 종류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욥이 이 구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의 몸이 주께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둘째로, 로마서 6:23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죄의 값은 사망임을 칼빈도 확인한다. 그러나 만약에 죽음이라는 것이 몸과 영혼 둘 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을 뜻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영혼이 나중에 영원한 불과 벌레가 갇아 먹는 고통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다(Calvin, *Treatise*: 143). 심판 날 전에 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영혼이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만 논리적으로 성립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이 완전한

9)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es* 1. 15. 2)에서 몸과 영혼을 나눔에 있어서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인간이 영혼과 몸으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다.



사멸이 아니라는 이유로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죽음의 의미로 ‘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말의 뜻이 실제로 흠으로 돌아간다는 것 보다는 “하나님과의 분리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감당 못할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칼빈은 주장하고 있다(Calvin, *Treatises*: 143).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게 되었던 영적인 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 이 진리에 대해서는 로마서 5:17절에서 가르치고 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이다.”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해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어 드디어 제세레파들에 대해 이와 같이 선포한다. “이 말씀 한 절만으로도 그들의[제세레파] 입을 막기에 충분하다” (Calvin, *Treatises*: 143).

3. 단순히 성경의 표현이 “잠자다”라는 이유로 중간기의 영혼이 숙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세레파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해 칼빈은 반대하고 있다(Calvin, *Psychopannychia*: 458). 이 부분에 대한 그의 대답은 “잠”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칭하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육체이지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다. 칼빈은 성경에서 “그가 그 아버지 열조와 함께 자니라” 라는 표현과 “그가 그 아버지 열조와 함께 장사 되니라” 라는 표현이 전혀 뜻의 구별이 없이 자유롭게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칼빈의 주장은 “잠자다”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몸이 무덤에 누여질 때 마치 잠자는 것과 같은 모습을 가지기에 사람의 죽음을 설명하는 단순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58).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경구절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밤에 사람이 침대에서 누워 자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시신을 땅에 누이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제세레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 잠자고 있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 영혼의 상태를 두고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고 칼빈은 말했다(Calvin, *Psychopannychia*, 459). 뿐만 아니라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를 들고 있다. 만약 제세례파가 맞다고 가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 잠을 자고 있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리스도가 구원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순간에 3일 동안 의식 불명으로 잠을 자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립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강도와 같이 잠을 잤다는 것인가?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은 불신자들이 전통적으로 언어적 습관으로 항상 사용해왔던 표현이다라는 것이다(Calvin, *Treatises*: 144). 그래서 묘지라는 뜻의 ‘cemetery’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는데, 그 뜻은 “사람이 잠자는 장소”이다. 이것은 비 기독교인들이 죽은 영혼들이 잠을 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침대에 누워있듯이 땅에 누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Calvin, *Treatises*: 145).

기독교 강요에서도 칼빈은 영혼이 의식을 가진 채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고 있다. “만약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다고 한다면, 몸과 분리가 된 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존재는 무엇이라는 말인가?”(Calvin, *Institutes*: III. 25. 6). 고린도후서 5:6-8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칼빈은 바울이 자신의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바랄 때에 했던 말의 뜻은 그의 육체가 죽음을 경험한 뒤에 곧바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영혼의 상태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영혼이 의식적인 상태로 있음을 칼빈은 한 구절을 더 인용해서 확증하려 한다. “만약 영혼이 몸을 벗어난 후 그 본질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축복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스테반의 예(사도행전 7:59)와 다른 성경의 예를 통해 칼빈은 영혼의 상태가 의식적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반증했던 것이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해서 칼빈이 지적하는 것은, 비록 제세례파들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을 받아 들인다고 할 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첨가시킨 “잠자다”라는 개념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증거들 자체로 인해 오히려 반증이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비록 영광의 면류관을 최후에 받기 전이라도 반드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영광의 자리에 영혼이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최후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살아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직은 자신들의 상급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완전히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택된 자들은 최후의 그 날까지 자신들이 받을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한다든지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고 하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자들은 이미 부분적으로나마 소망을 통해 그러한 축복들을 현재부터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Calvin, *Treatises*: 147). 뿐만 아니라 “오라” 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 받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일정한 시간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가 행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정점(*culmination of blessing*)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Calvin, *Psychopannychia*: 464). “구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마지막 심판 날의 의미는 선택된 자들이 그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가 그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 완벽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한다(Calvin, *Psychopannychia*: 464). 따라서 제세례파가 했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분별없는” 혹은 “악한 공상 소설”이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다 (Calvin, *Psychopannychia*: 463).

이제 영혼 숙면설(Soul Sleep)에 대해 칼빈이 적절하고도 성경적인 반증을 한 것을 통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중간기 상태에 대한 관점을 요약해 보는 것이 유익하겠다. 칼빈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양의 논문이나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작은 양의 글을 분산하여 적었다. 칼빈은 우리가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히 알아가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임을 만족하며 받아 들여야 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죽음 이후의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평화”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원수의 손에서 탈출 한 성도들의 영혼은 죽음 이후는 평화가운데서 존재한다”<sup>10)</sup>(Calvin, *Psychopannychia*:467). 또한 칼빈은 영혼들은 죽음 이후에라도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즐기게 될 것이다(Calvin, *Psychopannychia*: 467). 그는 증거로 한 구절을 인용한다. “그들은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나아갈 것이요”<sup>11)</sup>(Calvin, *Psychopannychia*:467).

그러나 타락한 이들에 대해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게헨나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될 것이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절(rejection)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더욱 큰 최후의 분노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이다(Calvin, *Treatises*: 137).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죽음이 오게 될 때, 그들은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에 의하면 나사로에 대한 비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비유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칼빈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이후의 현실에 대해 헛된 예를 통해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실 분은 아니라고 그는

10) 이탤릭체는 저자의 것.

11) 칼빈은 이 구절을 성경 어디에서인가 인용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디가 출처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확신하고 있다. 만약 영혼이 죽음 이후에 감각이나 의식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거짓이 된다. 칼빈이 여기서 묻는 것은 왜 나사로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언급 하셨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의미하고자 하신 것은 그 비유를 통해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받았고 경험했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다(Calvin, *Treatises*: 137). 믿는 자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칼빈은 “쉽(rest)”으로 표현한다(Calvin, *Treatises*: 138). 그러나 이 단어의 뜻이 완벽한 축복의 상태나 영원한 영광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최후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과 위로를 품을 떠난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칼빈은 확증하고 있다.

## IV.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러면 왜 칼빈이 영혼의 불멸과 의식적인 상태로의 존재 유지를 그렇게도 강하게 주장해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함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 보고자 한다. 제세레과의 4가지 주장에 대한 칼빈의 성공적인 4가지 변호를 통해 연구자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사하는 2가지 의미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선택하신 하나님의 창조

칼빈은 영혼이야 말로 인간의 본질(“essence of man”)로 정의 내리고 있다.

따라서 몸으로부터 분리된 죽은 자의 영혼은 그 사실 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분리된 영혼이야 말로 죽은 사람의 정체성 혹은 본질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최후의 클라이맥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몸은 죽어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창세기 1:26). 칼빈은 바로 이 구절에서 각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만약 우리가 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았다면,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심 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만 하며 이것은 바로 불멸하는 혼이라는 실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Calvin, Treatise: 122).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기에 좋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창세기 1:10, 12, 18, 21, 25, 31). 비록 죄로 부패했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역사로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렇게 선하게 창조 되어진 것들이 회복된 상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 해야 하는 일은 성령의 구속적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있는 것들을 창조 시에 드러난 원래의 목표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18-19절은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야 말로 오늘을 살아가며 학문과 직업과 문화와 과학과 예술과 정치와 경제에 몸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비전과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 2.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미 떠난 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위로 가운데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기에 소망가운데 살 수가 있다. 칼빈은 우리에게 권고한다. “우리의 영혼의 수호자이시며 인간의 폭력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둘 때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다”(Calvin, *Treatises*: 124). 따라서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고린도후서 5:6-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게 되는 소망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죽음도 방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떠나간 영혼이 기쁨과 위로 속에서 지낼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된다.

## V. 결 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간기 상태는 실천적인 그리고 목회적인 면에서 피할 수 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큰 그림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영혼의 중간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지식이 없다. 불완전한 지식이지만 칼빈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영혼의 중간기에 대해 성경에서 계시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선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권고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부분 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도 칼빈에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목양적인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따뜻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가끔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 친척의 죽음을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당면하는 질문은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이다. 16세기의 개혁의 선봉자이자 목회자였던 요한 칼빈은 성경에 대해 조심스러우면서도 방대하며 명확한 해석을 통해 영혼의 상태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피력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상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알 때가 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게 되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껏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엄청난 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말로 주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위로와 소망이다.



참고문헌

- Balke, Willem.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William J. Heyne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1.
- Bavinck, Herman. *The Last Things: Hope for This World and the Next*. Ed. Bold John. Trans. Vriend Joh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 Calvin,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vol. ed. by John T. McNeill and trans.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0.
- Calvin, John. *Tracts and Letters: Selected Works of John Calvin*. 3 vols. Tracts, Part 3 Psychopannychia 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Calvin, Joh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ed. trans.
- Benjamin Wirt Farle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 Choi, Yoon Bae. "The Eschatology of the Theology of the Reformed Reformers: H. Zwingli, M. Bucer, and J. Calvin" *Journal of Korea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38 (2005): 185-209.
- Cooper, John W. *Body, Soul, and Life Everlasting: Biblical Anthropology and the Monism Dualism Debat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89.
- Hoekema, Anthony.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9.
- Holwerda, David. *Exploring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d. Holwerda David.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Ladd, George E. *The Last Thing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8.
- Plass, Ewald M. *What Luther Says*, vol. 1.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0.
- Ladd, George E. *The Presence of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4.
- Pelikan Jaroslav, *Luther's Works*, vol. 4. ed.,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64.
- Quistorp, Heinrich. *Calvin's Doctrine of the Last Things*. London: Lutterworth Press, 1955.
- Vos, Gerhardus. *The Pauline Eschat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9.
- Wendel, Francois.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50.
- Yeaton, Kenneth. "Aspects of Calvin's Eschatology." *Churchman* 100 (1986): 114-126.